

코로나19 대유행에 나주 혁신도시 너도나도 '재택근무'

■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재택근무 인원

(자료: 알리오, 단위: 명)

기관명	2020	2021
한국전력공사	1만2760	1만1431
한국농어촌공사	3390	2896
한전KDN	1798	1947
한전KPS	2631	18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38	572
한국인터넷진흥원	543	481
한국콘텐츠진흥원	330	24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46	146
한국전력거래소	253	1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2	10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60	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	2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6	18
합계	2만2989	1만9877

*2020년은 연도말, 2021년은 상반기 누계

14개 기관 상반기 2만명 육박...지난 한 해 86.5% 수준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894명 사용...농어촌공사 639명

코로나19 대유행 2년차를 맞은 올 상반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공기업들의 재택근무 인원이 2만명에 육박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자는 지난해 기준 900명에 달했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표시된 나주 혁신도시 14개 기관의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재택근무 인원은 총 1만9877명으로 집계됐다. 총 임직원(4만9030명)의 40%에 달하는 인원이 집에서 일한 셈이다.

지난 한 해 이들 기관은 재택근무 인원은 총 2만 2989명으로, 올 상반기 인원은 이의 86.5% 수준에 달했다. 지난 2019년(총 6명)에 비해서는 331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올 상반기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재택근무를 가장 많이 한 곳은 한국전력(1만1431명)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2896명), 한전KDN(1947명), 한전KPS(1826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572명), 한국인터넷진흥원(481명), 한국콘텐츠진흥원(247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46명), 한국전력거래소(127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103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62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21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8명) 등 순이었다. 올해 1월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전MCS는 재택근무 인원이 없었다.

지난해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자는 총 89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14개 기관들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자는 총 894명으로, 남성 550명·여성 344명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가 639명(남 399명·여 2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콘텐츠진흥원 110명(남 65명·여 45명), 사학연금 49명(남 36명·여 13명), 한전 44명(남 25명·여 19명), 한전KDN 17명(남 12명·여 5명),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명(남 5명·여 9명), 인터넷진흥원 10명(남 3명·여 7명), 전력거래소 5명(남 2명·여 3명), 한전KPS 4명(남 2명·여 2명), 한전MCS 남 1명,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 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해 1월부터 시

행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됐다. 공공기관의 가족돌봄 휴가제도 운영현황과 사용자 수는 올 상반기부터 공식 항목으로 새로 추가됐다.

혁신도시 기관들은 상반기 지역인재 107명을 포함해 총 501명의 일반 정규직원을 새로 채용했다.

한전KPS가 상반기 44명을 광주·전남 출신으로 뽑으며 지역인재 채용을 가장 많이 했다. 이어 한전(22명), 한전KDN(17명), 농어촌공사(10명), 콘텐츠진흥원(7명), 전력거래소(6명), 문화예술위원회(1명) 등 순이었다.

연말까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13곳(한전MCS 제외)은 의무채용 대상인원 1012명의 27.6% 비중인 279명을 광주·전남 출신으로 채용 계획이다. 올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은 27%, 내년은 3%포인트 오른 30%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14개 기관 총 임직원은 4만9030명으로, 지난해 말(4만8065명)에 비해 2%(965명)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새로운 보해소주, 히말라야 소금으로 맛냈다

도수는 낮추고 용량은 올리고
히말라야 핑크 솔트 등 가미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자신의 회사 이름을 건 완전히 새로운 소주 '보해소주'를 출시한다.

보해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16.8도로, 용량은 375ml이다. 잎새주 등 기존 녹색병보다 한 잔(15ml) 분량의 용량이 더 많다. 오는 8월 중순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소매점 등에 순차적으로 입점될 예정이다.

보해양조가 사명을 걸고 출시한 보해소주의 가장 큰 특징은 소금으로 맛을 냈다는 점이다. 그동안 주류회사들은 소주의 알코올 향과 쓴맛을 단맛으로 잡기 위해 활용했던 것과 상반된다.

'보석같은 바다'라는 뜻을 지닌 보해라는 사명처럼, 당을 넣는 대신 바다에서 얻은 천일염으로 맛을 잡았다. 세계 3대 소금으로 손꼽히는 신안 토판염을 비롯해 히말라야 핑크 솔트, 안데스 레이크 솔트를 최적의 비율로 가미했다.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검증을 통해 해당 제품에 첨가된 소금은 짠맛보다 깔끔하면서 식욕을 돋우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해양조는 신제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손혜원 전 크로스포인트 대표와 협업했다. 그동안 주요 기업들과 손잡고 '트롬', '힐스테이트' '정관장' 등 인기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현 주류시장 1위, 2위 제품 탄생에 직접 기여한 손 대표와의 협업이라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은다.

특히 보해양조와 손 대표는 보해소주 출시에서



트렌드를 쫓기보다 기업이 가진 본연의 가치에 충실했다. 레트로 열풍을 따라가기보다 기업 본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품 라벨 디자인을 채택한 이유기도 하다.

'보석같은 바다'라는 뜻을 담은 보해라는 사명과, '한 잔의 술에도 바다의 깊이'이라는 슬로건처럼 그동안 바다를 강조해온 보해는 보해소주 전면에 한자 바다 해(海)를 넣었다. 보해소주 전면에 들어간 글씨는 조선을 대표하는 명필 추사 김정희의 필체로 힘찬 기운이 널리 뻗어 나가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제품 표기사항을 전면 측면

라벨에 배치하고 후면에는 사명과 함께 시선을 한 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다채로운 색감의 로고도 더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소주는 우리 소주의 우수함을 해외까지 자랑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아낌없이 발휘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다"며 "보해분자주로 세계에서 인정받았던 보해양조가 보해소주라는 또 다른 제품으로 인정받는 등 한국 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다시 고개 숙인 광주·전남 제조업 경기

이달 매출 전망 전달보다 6P↓

광주·전남 제조업계가 이달 매출이 전달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제조업체들의 8월 매출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달보다 6포인트 떨어진 97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기준치(100) 이상이면 긍정응답한 업체 수가 부정응답한 업체보다 많고, 이하면 적음을 나타낸다.

매출 전망 지수는 지난 5월(101)과 6월(101), 7월(103) 등 석 달 연속 100을 넘겼지만 이달 들어 반락했다. 단 7월 매출 BSI는 101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7월 광주·전남 제조업의 업황 BSI는 87로 지난달과 동일했다. 8월 업황 전망 BSI는 86으로 1포

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72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8월 업황 전망 BSI는 4포인트 떨어진 72로 나타났다.

7월 매출 BSI는 81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으나, 8월 매출 전망 BSI는 80으로 하락했다.

경쟁으로사함을 몰아보니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상승(31.9%)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 상황(17.5%),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6.4%), 내수부진(9.5%) 등 순이었다.

비제조업체들은 애로사항으로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21.7%)과 내수부진(13.7%), 불확실한 경제상황(13.4%), 자금부족(10.4%), 경쟁심화(10.0%), 원자재 가격상승(5.8%) 등을 들었다.

이번 조사에는 광주·전남 지역 종사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중 제조업 242곳, 비제조업 271곳 등 585곳이 참여했다.

/백희준 기자 bhj@

전력거래소, 휴가철 안정적 전력수급 전망

7월27일 최대 전력수요 기록

여름철 휴가 기간인 8월 첫째 주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당국이 전망했다.

전력거래소는 2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4주차(8월 1주) 주간 수급실적 및 전망' 자료를 내며 이 같이 밝혔다.

이달 첫째 주(2~6일)는 하계 휴가 집중 기간으로, 최대 전력수요는 81.5~87GW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비력은 11.7~17.2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예상했다.

한편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열대야와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 27일 오후 6시 을여름 최대 전력수요(91.1GW)를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23.04 (+20.72)
↑ 코스닥	1037.80 (+6.66)
↑ 금리(국고채 3년)	1.435 (+0.018)
↑ 환율(USD)	1150.90 (+0.60)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